

# 眼压

## 시각과 맥박 Pulse of Sight



전 시 명 : 眼压 시각과 맥박 Pulse of Sight  
일 시 : 2013. 12. 20 – 2014. 02. 23 (66일간)  
장 소 : 학고재 상하이  
참여작가 : 김기라, 이세현, 홍경택  
출 품 작 : 회화 5점, 영상 3편  
문 의 : shanghai@hakgojae.com

### 담당

최수영 soo@hakgojae.com

이예림 lee@hakgo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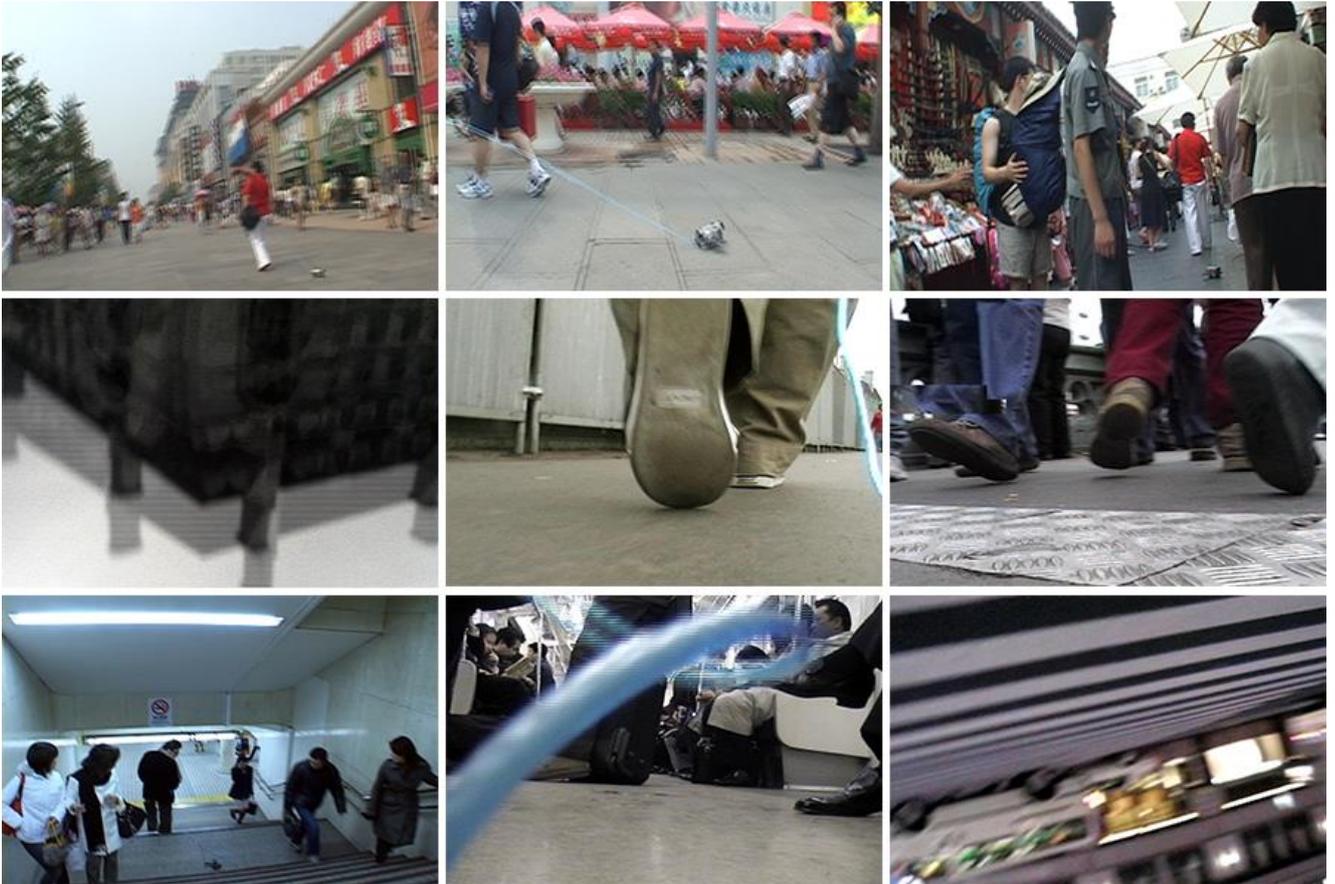
## 전시 개요

학고재갤러리는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상하이에 새롭게 공간을 열고 개관전으로 '시각과 맥박(眼压)'을 선보인다. 학고재는 1988년 서울 인사동에 개관하여 2008년 현재의 북촌 문화예술거리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5주년을 맞은 2013년, 아시아 중심 도시 상하이의 예술특구 모간산루 M50에 233평방미터(70평) 규모의 '학고재 상하이'를 개관하게 되었다.

논어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서 그 뜻을 가져 온 '학고재'는 초기 전통미술 전시에서 나아가 80, 90년대의 민중미술, 현대미술, 그리고 동시대미술 전시까지 옛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 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전시를 소개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맥박'이란 사람의 신체 내에 흐르는 기(氣)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시명 '시각과 맥박(眼压)'은 사람의 몸의 기가 밖으로 표출되어 미술작품으로 시각화 되었다는 노장사상의 생각을 전시로 연결한 것이다. 참여 작가 김기라, 이세현, 홍경택은 모두 전통과 창조의 기절(奇絶)한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내며 학고재의 온고지신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였듯 오늘날의 미술시장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상하이는 전통의 뿌리 위에 현대가 꽃 피어 가는 아시아의 경제 중심도시이기에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고재 상하이는 전통의 가치를 수용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전시로 세계 미술의 상하이 시대를 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김기라, 바닥\_소비자-정부-개인, 2004-2005, 2채널 비디오 설치, 35분 00초

### 김기라 (b.1974)

김기라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위치와 그와 대치되는 개인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회화, 설치, 조각 및 비디오를 넘나들며 이러한 소재들이 반영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영상작품 중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바닥\_소비자-정부-개인(2004-2005년 작)'과 '29층(2002년 작)'을 비롯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근작 'On the bridge(2013년 작)'까지 총 3점을 전시한다.

2004년부터 제작한 '바닥\_소비자-정부-개인' 연작에서 작가는 작동 중인 캠코더를 마치 강아지를 산책시키듯 끈에 묶어 바닥에 끌고 베이징, 도쿄, 런던을 돌아다닌다. '바닥'에서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의 위치와 더불어 격렬한 마찰로 인해 노이즈 가득한 이미지들은 곧바로 관객에게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되며 강렬한 잔상을 남긴다. 바닥에 끌리는 모습이 흡사 백남준의 '길에 끌리는 바이올린(1961년 작)'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이 연작은 2006년 작고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한 헌사의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2002년에 제작된 '29층'과 2013년 제작된 'On the bridge' 또한 캠코더가 기록 및 재현하는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약 80-90m 아래로 추락하면서 기록된 영상과 최후의 순간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기록장치가 기록하는 주체로서의 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기라는 2000년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2002년 동대학원 환경조각과를 졸업한 후 2007년 런던 골드스미스컬리지에서 파인아트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2010, 서울), Figge von Rosen Galerie(2009, 쾰른, 독일), 대안공간 루프(2008,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갤러리 175에서 신학철과 2인전을 진행했다. 뒤셀도르프 미술관(2013, 독일), 국립현대미술관(2012, 과천), 카오슝 시립미술관(2011, 카오슝, 대만), 리움 삼성미술관(2011, 서울), 민생미술관(2010, 상해, 중국)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세현, 비트윈 레드 - 187, 2013, 린넨에 유채, 334x745cm

### 이세현 (b.1967)

'붉은 산수(Between Red)'로 잘 알려진 이세현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현재의 한국적 미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시대를 사는 예술가가 사회를 어떻게 고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가라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민주화 투쟁, 분별없는 개발과 건설로 사라진 자연의 변화를 통해 현대의 풍경 속에 담긴 두려움 기억 속에서 고집어내어 시각적으로 풍성한 화면으로 전개시킨다. Between Red 연작은 작가의 정치적 판단을 드러내기 보다는 분단국가, 그 자체를 바라보는 한 젊은이의 경험에서 시작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멀리서 보기엔 그저 아름답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진 달동네와 판잣집, 오솔길 등 변두리 삶의 애환을 통해 우리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면서도, DMZ 풍경 등 분단된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의 현재진행형 역사를 보여준다.

2013년 상하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Between Red - 187>은 지금까지의 Between Red 연작에 인물을 더하고 산수 골라쥬의 이미지를 정렬시킴으로써 그 폭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여름 휴가를 즐기러 해변가를 찾은 비키니 차림의 여인들 사이로 어지럽게 배치된 작가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한국근현대사의 상징적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의 희노애락을 담아낸다. 작가는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전통적 산수화법과 서양화의 원근법을 통합하거나, 공간의 안과 밖, 밤과 낮을 뒤섞어 놓는 자유로운 포맷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신작에는 인물을 더하여 이 기묘한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세현은 1989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2001년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6년 런던 첼시예술대학원 미술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학교재갤러리(2012, 서울), 니콜라스 로빈슨 갤러리(2011, 뉴욕), 헤어우드 하우스(2009, 리즈, 영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하오미술관(2013, 원저우, 중국), 플라토 삼성미술관(2012, 서울), 하우스 오브 노블만(2012, 런던),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2011, 베니스)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민생현대미술관, 하오미술관, 마이크소프트 아트컬렉션, 삼성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홍경택, Pens 3, 2001-2010, 린넨에 유채, 259x776cm

### 홍경택(b.1968)

펜과 책 그리고 대중문화 이미지를 차용하여 강렬한 색감으로 화면 전체를 채우는 홍경택은 팝아트와 사실주의, 세속과 성스러움, 디자인과 회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 여러 대립항들이 공존하는 조형성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뉴욕 레지던시 기간에 방문한 중고 책방의 모습을 담은 'NYC 1519 part2'와 함께 그의 대표작인 8미터 가량의 대작 'Pens 3', 그리고 새로운 'Pens' 시리즈를 선보인다. 홍경택의 Pens 시리즈는 화려한 색채와 매끈한 플라스틱 질감의 필기구들이 마치 무한 증식하듯 뿔어나가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형광빛의 찬란한 불꽃놀이와 같이 솟아오르는 연필은 더 이상 일상의 필수품에 머무르지 않고 날카롭게 분출하여 시각적 충만함을 완성한다.

이러한 연필의 발산하는 이미지가 에너지의 '분출'이라면 그의 다른 시리즈 '서재'는 에너지의 '응축'을 나타낸다. 작가 스스로 '성스러운 땅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뿔어져 나오는 공간'이라 술회한 그의 작품 'NYC 1519 part2'의 서재는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핵심이 집대성된 영역이다. 현대미술이 잃어버린 미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서재 안의 그림들은, 모나리자와 바니타스 정물화와 같이 정통 미술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들부터 그에 벗어난 계보까지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동굴이자 예술가의 비가시적 에너지가 응축된 정수인 것이다.

홍경택은 1995년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2012, 서울), 아르코미술관(2005, 서울), 인사미술공간(2000,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광주시립미술관(2012, 광주), 플라토(2011, 서울), 국립현대미술관(2010, 서울)등 다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일민미술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전시 서문

### 시각과 맥박

오늘 학고재가 상하이 모간산루에서 문을 엽니다. 땅 속 깊숙한 곳에서 양 기운이 태동한다는 동지 즈음입니다. 때를 맞춘 '길월양신(吉月良辰)'입니다.

학고재는 1988년 가을, 한국의 서울 인사동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5년 전 일이니,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관 25주년 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 상하이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학고재 상하이 개관을 겸하여 거행하게 되므로 기쁨을 넘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각오와 기대로 벅칩니다. 저는 지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학고재는 서울에서 얼마 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바로 옆 북촌 문화예술거리에 2동의 전시장 건물을 갖춘 제법 큰 규모의 화랑입니다만, 25년 전 처음 인사동에 문 열 때는 10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규모였습니다. 시작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화랑인 셈입니다.

화랑 이름을 '학고재'로 지은 것은 논어의 '溫故而知新'에서 뜻을 가져온 것입니다. 전통을 습득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자는 다짐입니다. 개관전을 비롯한 초창기의 기획전은 저명한 미술사학자들의 참여 아래 전통회화를 성격별, 시대별로 분류하여 선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화랑들은 하나같이 현대미술전을 열기에 급급했고 전통미술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학고재는 그와 반대로 고서화전을 고집하였습니다. 전통에 대한 인식을 다지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창조는 학고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가 거듭되면서 미술사에 대한 식견이 쌓였습니다. 작품을 품평하는 주관도 뚜렷해졌습니다. 미술사에 이름을 올린 작가와 작품에는 시대정신이 오롯이 담겨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무릇 명작은 작가가 활동하던 당대의 상황, 사회의 병통과 폐단, 그것에 응대하는 민중의 지혜와 해학 등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며 내일의 길을 제시한 작가와 작품만이 미술사를 장식했음을 보았습니다. 작가는 세상을 읽어내는 존재입니다. 시대의 요구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한 능력은 학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학고재 출판사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출판사 학고재는 고전의 오래가는 향내를 간직한 책들을 소개했고, 고전의 품격을 감히 넘보려는 오늘의 필자들을 꾸준히 발굴했습니다.

온고지신의 진정한 의미는 옛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 이 시대의 창조물을 구현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학고재가 전통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거기에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얻어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골라내는 식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80년대와 90년대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민주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군부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무렵 한국에서 태동한 미술운동이 이른바 '민중미술'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대의 상황과 정신을 담아낸 가치 있는 미술이라고 여겼습니다. 사회적 여건상 상업 갤러리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었지만, 학고재는 과감히 민중 계열의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오윤, 신학철, 강요배 등 이른바 민중미술권 대표 작가들의 전시를 거듭 마련했습니다. 정치적인 경계와 미술시장의 외면이 만만치 않았습디다. 그렇지만 고집스럽게 학고재의 현대작가전을 '민중미술' 전시로 꾸몄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모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젊기에 과감했고, 그 고집은 옳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평(正評)이 나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간되는 세계 현대미술사를 다룬 책들이 한국의 현대미술로 거의 유일하다시피 '민중미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의 반응도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의 작품은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갈수록 높은 가치를 형성합니다. 학고재의 현대미술

수용은 학계와 시장에서 모두 성공한,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자부심을 안겼습니다.

학교재는 전통의 가치를 수용한 현대작가들의 작품전을 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격은 여여할 것입니다. 2006년에 열린 중국작가 자유푸(贾又福) 전, 2007년에 열린 천원지(陈文驥) 전, 2008년에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SENSITIVE SYSTEM'전, 그리고 최근에 열린 '유희적 저항'과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을 눈여겨보시면 학교재의 맥락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재 상하이 갤러리 오픈전에 '시각과 맥박(眼压)'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김기라, 이세현, 홍경택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전통과 창조의 기절(奇絶)한 아름다움'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맥박은 사람의 신체 안에 흐르는 기(氣)와도 같습니다. 몸 속의 기가 밖으로 표출되어 회화 작품으로 시각화 되었다는 노장사상의 생각을 전시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미술시장은 경제의 중심지를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아시아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의 시대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이는 전통의 깊은 뿌리 위에 현대가 꽃피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상하이에서 세계 미술계의 조류가 만들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미술시장의 전성기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황포강의 물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깊은 산속에서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되었답니다. 한 방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장강대하를 이룹니다. 이 물이 끝내 바다에 이르러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문득 중국의 시성(詩聖)인 두보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不有萬穴歸 何以尊四瀆'이라(만 갈래 물길이 흘러들지 않았다면, 사독이 어찌 존귀하리오) 오늘 문을 여는 이 학교재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협력하여 세계 미술의 상하이 시대를 여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힘과 혼을 바치겠습니다.

우찬규

학교재갤러리 대표